

보도시점 2025. 9. 15.(월) 11:00
< 9.16.(화) 조간 >

배포

2025. 9. 15.(월)

산업부-베트남 국장급 회의 개최

- 베트남 산업부 및 재무부와 현지 투자기업 애로해결 방안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9월 12일(금) 베트남 재무부, 9월 15일(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각각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8월 또 럽 당서 기장 국민 방한 계기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과 이행현황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9월 12일(금) 개최된 「제1차 한(산업통상자원부)-베(재무부) 국장급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반 수(Do Van Su) 재무부 외국인 투자청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駐)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駐)한 베트남 대사관 투자관 및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①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부가가치세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②HD 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 인수에 따른 현지 특별 인센티브 승계, ③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지체 없는 지원 등 기업 애로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재무부에서 제안한 공급망 분야,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협력, 양 부처 산하 공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산업부와 베트남 재무부는 그동안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바 있으나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체는 없었던 만큼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지원, 원전·공급망 등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베트남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인센티브 승계 관련 애로사항은 지방 정부 소관이나 재무부 차원에서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9월 15일(월) 「제4차 코리아 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쩍 흥(Do Quoc Hung) 산업무역부 외국시장개발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주(駐)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駐)한 베트남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유통물류진흥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였다.

동 “공동작업반”은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하여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로서, ‘23년 9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애로해결 방안도 논의하는 국장급 핫라인 협력 플랫폼이다.

* 「KOREA PLUS IN VIET NAM AND VIET NAM PLUS IN KOREA」 (한산업부-베산업무역부)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2030년 양국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원전 인력양성 MOU 이행계획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베트남 현지 우리 재생에너지 투자기업들의 전력판매 관련 애로해결 및 LNG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 등에 대해 요청하였고, 이에 베트남측은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며 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투자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관급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 공동위」 등 다층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4-203-5714)